회차 도입 — 패권전쟁의 결말은 한 가지가 아니다

· 정리 2026-05-07

회차 도입 — 패권전쟁의 결말은 한 가지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패권전쟁은 단순히 '미국 승리' 또는 '중국 승리' 두 갈래로 끝나지 않는다. 양국이 오랜 기간 대립하며 각자의 영향권을 유지하는 시나리오, 양국 모두가 쇠락의 길을 걸으며 세계가 다극화 체제로 전환되는 시나리오까지 포함하면 가능한 결말은 최소 **4가지**다. 통화도 마찬가지다. 달러가 패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도, 위안화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지만, 두 통화의 가치가 함께 하락하거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결과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번 4강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패권 전쟁의 양상과 그것이 돈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다룬다. 다음 5강에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다루기에 앞서, 본 회차는 **패권 전쟁과 돈의 본질적 관계**를 정리하는 무대를 깐다.

1. 표면 원인 — GDP 격차의 빠른 축소와 재확대

미·중 패권전쟁의 직접 발단은 양국의 GDP 격차가 매우 빠르게 좁혀졌기 때문이다. 미국 대비 중국의 GDP는 다음과 같이 변해왔다.

연도	미국 대비 중국 GDP
2000년	12%
2010년	41%
2020년	70%
2025년	63%

2000년 12%에 불과했던 중국 GDP는 2020년 70%까지 추격했고, 많은 전문가는 2030년대 추월을 점쳤다. 그러나 최근 다시 63%로 후퇴했다. 원인은 세 가지다 — 중국 자체의 성장 둔화, 위안화 가치 하락, 미국의 패권 압박.

중국 경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미국보다 높다**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금융 시스템이 고도화되며 부채가 증가하지만, 중국은 G2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 단계상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다. 부채는 초기 단계에서는 성장을 가속하는 배터리처럼 작동하지만, 8배·16배로 불어나면 그 무게가 주행을 방해한다 — 중국의 부채는 이미 그 임계점을 넘었다.

여기에 **과잉생산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고착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수출 증가율 둔화**까지 겹쳤다. 중국은 한국식 외환위기를 가장 경계했고 강력한 금융 시장 방어벽으로 외환 위기 없이 고속 성장했지만, 이제 일본식 디플레이션('일본화')이라는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 이를 피하려고 시도한 '더 저렴한 생산 + 더 심한 과잉 생산'으로 전 세계 제조업을 잠식하려던 전략은 미국·유럽·캐나다·동남아·남미까지 가세한 관세 장벽으로 무산됐다.

2. 숨은 원인 — 작아진 파이의 제로섬 게임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패권전쟁의 시발점은 좁혀지는 GDP 격차였으나, 최근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데도 패권전쟁은 오히려 더 격렬해지고 있다. 이는 GDP 격차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 — 바로 **'작아진 성장 파이'** — 가 진짜 원인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10년 단위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흐름이 분명하다.

연대	미국 연평균 성장률
1960년대	4.4%
1970년대	3.2% (스태그플레이션에도 불구)
1990년대	3.4% (클린턴 호황)
2000년대	2.0%
2010년대	2.3%
2030년대 (전망)	**1.6%**

여러 국제기구와 글로벌 은행들의 전망치를 종합하면 2030년대 미국 성장률은 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합계 출산율이 1.6명·1.5명 수준까지 하락하며 인구가 감소하고, 금리 인상으로 투자가 위축되는 등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장률 하락은 더 극적이다.

연대	중국 연평균 성장률
1980~2000년대	9.7% / 10.0% / 10.3%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30년 고속 성장)
2010년대	7.7%
2020년대 (현재까지)	4.8%
2030년대 (전망)	**2.5%**

전체 파이가 작아지는 상황에서는 남의 파이를 빼앗는 약탈 외에는 답이 없다. 이것이 GDP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음에도 패권전쟁이 더 격렬해지는 근본 이유다.

'스트롱맨 리더십'이 등장한 진짜 배경

미국 증시는 활황이지만 이는 **상위 20% 자산 가격만 동반 상승한 결과**일 뿐, 하위 80%의 삶은 오히려 더 팍팍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위 80%의 국민들은 트럼프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중국과 동맹국들의 부를 빼앗아 자국의 이익을 찾아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스트롱맨' 리더십이 미국 정치의 중심에 등장한 배경**이다. 이제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른 나라의 성장을 훔쳐 오겠다고 공언해야만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나라로 변모했다.

이 흐름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분배 금융 계정(DFA)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상위 1% 가구가 미국 전체 부의 31.7%를 보유 중이며, 이는 1989년 통계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 액수는 약 55조 달러로 하위 90% 가구가 보유한 부 전체의 합계와 거의 동일하다. 상위 1%의 주식·뮤추얼 펀드 보유 비중은 2002년 40%에서 2026년 50%로 확대됐고, 블룸버그는 2026년 1월 21일 자 보도에서 미국 부의 불평등이 **2차 대전 종전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명시했다. †2

3. 미·소 냉전과 미·중 패권전쟁의 결정적 차이

미·소 냉전 시대(1960년대)에는 미국과 소련 모두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당시 경쟁은 **'누가 더 빨리 달리는가'의 속도 경주**와 같았고, 양국 모두 성장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상대보다 더 빨리 결승점에 도달하면 승리하리라 믿었다. 따라서 치열한 냉전 속에서도 미래는 더 밝을 것이라는 낙관이 사회 전반에 존재했다.

당시 미국은 동맹국을 강화시켜주는 방식으로 경쟁에 임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재건을 돕기 위해 마셜 플랜이라는 대규모 원조 계획을 실행했고, 자본을 투입해 유럽 경제를 살려주면서 그들을 공산주의 확산 방패막이로 삼았다. 이러한 전략 아래 미국은 유럽과 일본에 막대한 원조를 제공했고, 이는 **'관용의 전쟁'**을 촉발했다.

반면 현재의 미·중 패권전쟁은 양국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지는 **'약탈의 전쟁'**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동맹국의 부를 흡수하여 자국 성장률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취한다.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고 강압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동맹국에 자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약탈의 원조는 일대일로의 중국이었고 미국이 가세하면서 한국·일본·대만·유럽까지 거대한 늪에 함께 빨려 들어가는 구도가 됐다.

축	미·소 냉전	미·중 패권전쟁
양상	"누가 더 빨리 달리나" 속도 경주	"누가 먼저 죽나" 질식사 경쟁
전제	양국 모두 성장하고 있다	내부 성장 동력이 꺾였다
정서	미래에 대한 낙관 지배	증오·남탓·공포가 원동력
동맹 정책	마셜 플랜·일본 원조	동맹의 부 약탈 (관세 vs 일대일로)
결말	한 방에 붕괴	장기적 질식전

미·소 냉전은 비효율적인 소련 체제가 한순간에 붕괴하면서 깔끔하게 종결됐다. 마치 100m 달리기에서 월등히 빠른 선수가 승리한 것과 같았다. 그러나 미·중 패권전쟁은 **'장기적 질식전(Long Suffocation)'**의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 양국 경제가 서로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함께 늪에 끌려 들어간다 —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리면 세계의 공장이 사라져 인플레이션 폭발, 중국이 미국을 무너뜨리면 최대 수출 시장 상실로 디플레이션 심화. 결국 서로의 목을 조른 채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다.

4. 장기적 질식전의 4가지 특징

(1) 효율의 종말 — 화폐 가치의 계단식 하락

양국이 서로의 목을 조르려면 공급망 차단이 필연적이다. 디커플링이 심화될수록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자국·동맹국 물건을 사야 하므로 가성비 개념이 사라지고 **구조적 고비용 체제**가 고착화된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화폐 가치는 동반 하락한다.

다만 화폐 가치 하락은 선형이 아니다. 마치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물가는 급등과 안정을 되풀이하고, 컴퓨팅 파워가 증가할수록 채굴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듯 돈의 가치는 **'계단식 하락'**의 형태를 보인다.

(2) 화폐의 무기화 — 달러 블록과 탈달러 블록

장기적 질식전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수단이 동원되는 과정에서 결국 **화폐가 무기화**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SWIFT(국제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고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경제, 특히 서민 경제는 막대한 물가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러시아보다 미국에 더 큰 타격이었다. 미국이 언제든 특정 국가의 달러 자산을 동결하고 SWIFT 망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미국의 결정 하나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이 심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브라질·인도·사우디아라비아는 **탈달러화(De-dollarization)**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중국의 대응 방식도 변화했다. 과거 중국은 위안화를 국제화하여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 했지만, 너무 섣부른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미국에 대응할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중국은 전략을 수정하여 위안화 국제화 대신 자국 자본 시장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자본 유출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폐쇄적인 디지털 위안화(CBDC)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결과: **달러 블록과 탈달러 블록으로 쪼개지는 세계**.

종이돈의 담보자산 — 신용 화폐 체제의 기묘함

원래 종이돈의 신뢰를 지탱한 것은 금이었다. 1971년 이전까지 미국 달러는 35달러당 1트로이온스의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금 교환 증서'였다. 그러나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는 **금태환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달러는 실물 자산인 금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오직 신용에만 의존하는 신용 화폐(Fiat Money)로 전환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달러의 신뢰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미국 국채**에서 나오게 되었다. 달러라는 종이 자체가 미국 정부의 빚문서인데, 그 신뢰를 또 다른 빚문서인 국채가 보증하는 기묘한 상황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지금까지 중국 위안화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준비 자산 중 하나 역시 미국 국채였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 중앙은행의 주요 자산은 외환보유고이며, 과거에는 이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이 미국 국채로 구성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들도 자국 통화를 발행하는 근거를 '미국인들이 빚을 갚을 것이라는 약속, 즉 미국 국채'에 두는 기묘한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5. 종이금에서 실물금으로의 대전환

달러 블록과 비달러 블록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미국이 달러 결제망 퇴출을 무기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신흥국들은 '보유하고 있는 달러나 미국 국채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고, 그 자리를 금으로 빠르게 대체하는 현상을 촉발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통화·금융 시스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기폭제**였다.

가짜 종이금으로 금 가격을 통제해온 미국

지금까지 미국은 '가짜 종이 금'을 이용하여 금 가격을 통제해 왔다. 달러의 가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금값이며, 미국 정부는 자국 은행들이 다소 불투명한 방식으로 금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다.

사건	시점	내용
모건 스탠리 가짜금	2007년 (소송)	보관료 받으며 실물 미보유. 인도 요구에 정산 유도 → 소송, 불리한 판결
JP모건 시세 조작	2008~2016년 (8년)	있지도 않은 금 매도 주문으로 금·은 시세 인위적 억제. 2020년 적발

미국 정부가 적극 단속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다 — JP모건 같은 금융 기관이 금 가격 상승을 막아주는 것이 달러 패권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회차 강의가 인용한 이 두 사건은 외부 데이터로 더 큰 패턴이 확인된다. JP모건은 2020년 9월 미국 법무부와 약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역대 최대 시세 조작 합의)에 도달했다. 같은 시기 다른 빅 뱅크들의 합의도 줄을 이었다 — Deutsche Bank가 2016년 3,800만 달러로 은 가격 담합 합의(2019년 승인), Bank of Nova Scotia가 2020년 8월 1억 2,740만 달러로 귀금속 시세 조작 형사 합의, Barclays는 2014년 영국 FCA로부터 런던 골드 픽싱 관련 2,600만 파운드 벌금. 회차에서 짚은 JP모건 사건이 단일 일탈이 아니라 **빅 뱅크 산업 전체의 묵인 패턴**임을 보여준다. †4

2025년 금의 대이동

이제 가짜 종이금으로 금 가격을 억누르던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미국 금융회사를 믿지 못하고 구매한 금의 실물 인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미국을 어벤져스처럼 정의로운 세계의 수호자로 믿었지만, 이제는 언제든 자산을 동결하고 무자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인식하게 됐다.

이러한 불신은 2025년 말 전 세계적인 **'금의 대이동'**을 촉발했다. 영국의 런던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금 거래 중심지였다 — 생산지에서 채굴된 금이 런던을 거쳐 미국으로, 다시 각국 중앙은행으로 분배되는 흐름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각국이 직접 실물 금을 자국으로 가져가면서 2025년 금 시장의 최대 화두는 '금의 대이동'이 되었다. 선물 시장 만기에 인도할 실물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거래소가 강제로 현금 청산을 유도하면서 불만이 고조됐다.

이 흐름은 회차가 멈춘 시점에서 한 발 더 진행되고 있다. 세계금협회(World Gold Council)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글로벌 금 수요는 1,231톤(YoY +2%)으로 견조했고, 그 가치는 1,930억 달러로 분기 사상 최고치(+74%)를 기록했다. **BRICS+ 국가들의 금 보유 비중은 2019년 11.2%에서 2026년 17.4%로 6.2%p 상승**했고,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글로벌 매수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 한 해에만 전 세계 중앙은행이 약 1,200톤을 추가했고, J.P.Morgan은 2026년 매수도 755톤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회차가 짚은 '금의 대이동'은 2026년에도 동일한 결로 가속 중이다. †1

(3) 화폐의 타락 — AI·군비 경쟁과 재정적자의 늪

장기적 질식전의 세 번째 특징은 **'화폐의 타락(Currency Debasement)'**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모두 구조적인 재정 적자 악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국가 부채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면 정부는 지출을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지금의 패권전쟁은 상대의 목을 조르는 장기적 질식전이라 단순한 긴축 재정이 불가능하다.

이 질식전에서 승리하려면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성장률이 경쟁국보다 낮은 상황이 10년·20년간 지속되면 결국 패배로 이어진다. 따라서 양국은 인위적 경기 부양을 통해 돈을 풀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만 하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과 군비 증강**이라는 두 영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전쟁에서 뒤처지면 곧 패배라는 **'질식의 공포'**가 양국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결과 천문학적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의도적인 통화 가치 하락 — **달러와 위안화의 동반 타락** — 현상은 2026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 진영 간 거래는 계속되어야 하므로, 이를 중개할 수 있는 대안 통화(특히 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4) 잦은 전쟁 — 총과 버터의 딜레마

> "전쟁도 해야 하고 국민도 먹여 살려야 하는 딜레마"

역사적으로 패권 국가가 쇠락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항상 **과도한 전쟁 비용**이었다.

패권국	시기	전쟁 이력	결과
스페인	16~17세기	신대륙 금·은으로 패권국 등극 → 펠리페 2세 잦은 전쟁	**4번 연속 파산**
영국	19세기	금본위제 + 강력한 기축통화 → 1·2차 세계대전	**패권국 지위 박탈**

미국은 우크라이나·중동·베네수엘라·이란 등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개입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동시에, 자국민의 복지 또한 책임져야 하는 **'총과 버터(Guns and Butter)'**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전쟁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선거 운동 중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전쟁 개입을 비판해 왔지만, 정작 집권 이후에는 후티 반군 공격, 이란 공습, 베네수엘라 침공 위협 등 적극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고 있다.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핵 항공모함 함대를 배치하고 군사 작전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모된다.

트럼프 지지율과 전쟁의 함수

시점	위험한 화약고
2026년 중간선거 전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이란
2028년 차기 대선 기간	기존의 화약고 + **대만 추가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할수록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아진다. 얼마 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으로 인기가 상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란드 점령이나 이란 공습 같은 극단적 방법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8년 차기 대선 기간에는 기존 분쟁 지역 외에 대만 문제가 새로운 화약고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2천조국 시대의 개막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방비를 대부분 '전쟁비'로 전환하는 것에 이어, 국방 예산을 현재의 1.5배로 증액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9천억 달러가 넘는 국방비를 지출해 왔으며, 이는 한화로 약 1,400조 원에 달해 **'1천조국'**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만약 국방비가 1.5조 달러로 증액된다면 한화로는 2,200조 원에 이르러 이제 미국은 **'2천조국'**이라 불려야 할 판이다.

이처럼 막대한 군비 지출은 과거 로마 제국의 몰락 과정과 유사하게 미국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 같은 거대한 제국이 3~4년 내에 몰락하는 일은 없다 — 제국의 쇠락은 보통 30년에서 6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 따라서 당장의 붕괴를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국방비와 국채 이자 상환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갈 것이다.

레이건 시대 vs 트럼프 시대 — 결정적 차이 ★

축	레이건 시대	트럼프 시대
GDP 대비 국가부채	**30%**	**120%**
군비 경쟁 결과	부채 여력 있음 → 소련이 먼저 무너짐	부채 여력 없음 → **연준의 국채 매입(QE) 강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하는 인물은 바로 공화당의 상징적 존재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다. 그러나 레이건 시대와 지금의 트럼프 시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레이건 시절 GDP 대비 미국 국가 부채는 30%에 불과했고, 미국은 소련과의 군비 경쟁('스타워즈 계획')에서 경제력으로 소련을 먼저 무너뜨렸다. 미국은 낮은 부채 비율 덕분에 장기간의 군비 경쟁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소련은 그러지 못했다.

지금은 다르다. 군사비 지출을 늘리면 국채 발행이 급증하고, 결국 연준이 돈을 찍어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다시 시행할 수밖에 없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20년 팬데믹 위기 때와는 달리, **특별한 위기 상황 없이 연준이 국채 매입에 나선다면 달러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하고 실물 자산 가격은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회차가 제시한 부채 비율 30%(레이건) vs 120%(트럼프)는 외부 통계로 검증할 때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미국 의회예산국과 FRED 데이터에 따르면 레이건 취임 시점인 1980년의 GDP 대비 연방 부채는 약 **26.2%**였고 1988년 임기 말에 **40.9%**까지 상승했다. 이는 회차가 말한 30% 시점이 레이건 임기 초반과 정확히 일치함을 보여준다. 반면 2026년 시점의 GDP 대비 연방 부채는 회차가 말한 120%를 이미 넘어 **134%**(WWII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즉 회차가 말한 위기 상황은 회차 시점 이후에도 더 심화되고 있으며, **위기 없는 QE 강제 시점이 회차가 우려한 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외부 데이터가 추가로 확인해준다. †3

6. 그래도 미국 달러가 강한 이유 — 동반 침몰하는 종이돈 시스템

달러 가치가 타락한다고 해서 위안화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 중국 역시 막대한 부채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진다고 해서 위안화가 패권 통화로 부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상황에서 달러가 상대적 강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유럽·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의 종이돈 시스템이 함께 침몰하는 가운데 **달러가 최상층에 위치**해 있어 가장 늦게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화	상황
유로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천문학적 비용 → 경제 악화
일본 엔화	에너지 수입 의존 + 미국·유럽 대비 빠른 고령화 + 막대한 국가부채
위안화	부동산 시장 붕괴 + 경기 침체 → 신뢰도 흔들림
달러	상대적 비교 우위 — 다른 통화가 더 큰 문제에 직면

따라서 2026년에도 미국이 막대한 양의 달러를 발행할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통화들이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달러는 상대적으로 가장 늦게 침몰할 것이다. **'부자는 망해도 삼 년 간다'** 또는 **'썩어도 준치'**라는 속담처럼, 달러는 기축통화라는 지위 덕분에 타락의 과정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7. 글로벌 시각에서 원화의 4가지 취약 요인

#	요인	메커니즘
1	**자본 유출 (미국 약탈)**	매년 약 200억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감 → 원화 상대적 약세
2	**미·중 디커플링에서 한국이 가장 큰 타격**	양국 사이 이익을 얻어왔던 한국이 한 진영을 선택해야 함 → 성장 동력 훼손
3	**한국 스스로 타락시킨 원화 가치**	2022년 1월 이후 한국 통화량 증가 속도가 미국보다 훨씬 빠름 → 더 빠른 가치 하락
4	**장기적 인구구조 악화**	G2였던 일본조차 인구구조 악화로 엔화 가치 하락.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

이러한 장기적 질식전 상황에서 대한민국 원화는 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매년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는 원화 가치의 상대적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중 간의 장기적 디커플링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양국 사이에서 이익을 얻어왔던 한국이 이제는 어느 한 진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경제 성장 동력이 훼손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 스스로 원화 가치를 타락시켰다. 2022년 1월 이후 한국의 통화량 증가 속도는 미국보다 훨씬 빨랐고, 이는 당연히 원화 가치가 달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인구 구조 악화 문제다. 과거 G2의 지위까지 올랐던 일본조차 인구 구조가 약화되자 엔화 가치가 속절없이 하락했다. 세계 9위까지 경제 규모를 키웠던 한국 역시 앞으로 심각한 인구 구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화 가치가 장기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패권 전쟁의 양상이 장기적 질식전으로 바뀐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한다. 특히 원화 가치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앞으로 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2020년대 말과 2030년대에 걸쳐 화폐는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정확히 올라타야만 우리의 소중한 부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 5강에서는 바로 이러한 화폐의 혁명과 미래 모습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룬다.

ONE LINE

달러는 가장 늦게 무너진다 —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통화는 없다.

회차 자료 보강

본 회차의 핵심 메시지에 새로운 시각을 더하기 위해 외부 4건을 인용했다. 각 자료는 강의가 멈춘 시점에서 한 발 더(시간 연장), 다른 측면(각도 확장), 또는 회차 명제의 후속 검증(검증·반박 / 사례 후속) 패러다임으로 매핑된다.

†1 시간 연장 — 2026 Q1 BRICS·신흥국 금 매수 재가속

회차가 인용한 **2025년 금의 대이동**의 그 후. 세계금협회(World Gold Council) 2026년 1분기 보고에 따르면 글로벌 금 수요는 1,231톤(YoY +2%)으로 견조했으며, 그 가치는 1,930억 달러로 분기 사상 최고치(+74%)를 기록했다. BRICS+ 국가들의 금 보유 비중은 2019년 11.2%에서 17.4%로 6.2%p 상승했고, 신흥국 중앙은행이 글로벌 매수의 약 95%를 차지한다. 2025년 한 해 전 세계 중앙은행은 약 1,200톤을 추가했고, J.P.Morgan은 2026년 매수가 755톤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95%의 중앙은행이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수 지속 의향을 유지한다고 응답했다. 회차가 짚은 흐름이 2026년에도 동일한 결로 가속 중임을 보여준다.

- World Gold Council "Gold Demand Trends Q1 2026" — gold.org/goldhub/research/gold-demand-trends/gold-demand-trends-q1-2026/outlook - Visual Capitalist, "Ranked: Central Banks Buying and Selling Gold in 2026" — visualcapitalist.com/ranked-central-banks-buying-and-selling-gold-in-2026 - OnlineGold.org, "Central Banks Added 1,200 Tonnes in 2025 — What It Means for Gold in 2026"

†2 각도 확장 — 미국 부의 불평등 (Fed DFA 데이터)

회차의 **'스트롱맨 등장 배경 — 상위 20% 자산 가격만 동반 상승 vs 하위 80% 팍팍'** 명제에 정량 데이터를 더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분배 금융 계정(Distributional Financial Accounts) 2025년 3분기 데이터에 따르면 상위 1% 가구가 미국 전체 부의 31.7%를 보유 중이며, 이는 1989년 통계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 액수는 약 55조 달러로 하위 90% 가구가 보유한 부 전체의 합계와 거의 동일하다. 상위 1%의 주식·뮤추얼 펀드 보유 비중은 2002년 40%에서 2026년 50%로 확대됐고, 블룸버그(2026-01-21) 보도는 미국 부의 불평등이 **2차 대전 종전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명시했다. 회차가 말한 "상위 20%만 자산 가격 동반 상승" 메커니즘이 정량적으로 더 극단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Federal Reserve, "Distribution of Household Wealth in the U.S. since 1989" — federalreserve.gov/releases/z1/dataviz/dfa/distribute/chart/ - Inequality.org, "Wealth Inequality" — inequality.org/facts/wealth-inequality/ - Bloomberg, "US Inequality Hits Postwar High as Wealth of the Richest Surges" (2026-01-21)

†3 검증·반박 — 레이건 시대 vs 트럼프 시대 부채 비율

회차가 강력한 정량 비교로 제시한 **GDP 대비 부채 30%(레이건) vs 120%(트럼프)**를 외부 데이터로 검증한다. 미국 의회예산국과 FRED 데이터에 따르면 레이건 취임 시점인 1980년의 GDP 대비 연방 부채는 약 26.2%, 1988년 임기 말에는 40.9%까지 상승했다. 회차의 30% 표현은 레이건 임기 초반과 일치하며 임기 평균치로 봐도 합리적이다. 반면 2026년 시점의 GDP 대비 연방 부채는 회차의 120%를 이미 넘어 **134%(WWII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 회차 시점 이후에도 더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결론: 회차의 비교 명제는 수치 정합성으로도 견고하며, **위기 없는 QE 강제 시점이 회차가 우려한 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메시지가 외부 데이터로 추가 확인된다.

- US Debt Clock, "US Debt-to-GDP Ratio Is 134% in 2026 — Higher Than WWII Levels" — us-debt-clock.com/debt-to-gdp - St. Louis Fed FRED, "Federal Debt: Total Public Debt as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GFDEGDQ188S)" — fred.stlouisfed.org/series/GFDEGDQ188S - Pew Research Center, "Key facts about the U.S. national debt"

†4 사례 후속 — JP모건 시세 조작 → 빅 뱅크 산업 전체 패턴

회차가 인용한 **JP모건 시세 조작 (2008~2016 8년)**의 그 후 빅 뱅크 합의 줄. JP모건은 2020년 9월 미국 법무부와 약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역대 최대 시세 조작 합의)에 도달했다. 같은 시기 다른 빅 뱅크들의 합의도 줄을 이었다 — Deutsche Bank 3,800만 달러 은 가격 담합 합의(2016, 2019년 승인), Bank of Nova Scotia 1억 2,740만 달러 귀금속 시세 조작 형사 합의(2020년 8월), Barclays 영국 FCA 2,600만 파운드 런던 골드 픽싱 벌금(2014). 2025년에는 새로운 class action들이 진행 중이다. 회차에서 짚은 JP모건 사건이 단일 일탈이 아니라 **빅 뱅크 산업 전체의 묵인 패턴**임을 외부 자료가 확증한다 — 이는 회차의 '미국 정부가 적극 단속하지 않은 이유'(달러 패권 유지) 명제를 더욱 무겁게 만든다.

- Sotos Class Actions, "Gold Price Manipulation" / "Silver Price Manipulation" — sotosclassactions.com/cases/silver-price-manipulation/ - Auronum, "From Fix to Fraud: Silver Manipulation by UBS and Deutsche Bank" — auronum.co.uk/from-fix-to-fraud-silver-price-manipulation-by-ubs-and-deutsche-bank/ - FinancialContent / StreetInsider, "Bullion Bank Manipulation Claims Resurface" (2025-10-22)

> 본 정리본은 박종훈의 경제 로드맵 Part 1 — 돈의 종말, 4강 「패권전쟁과 돈의 미래」(2026-01-22 게시) 정규강의 정리본을 베이스로 작성됐다. 외부 자료는 †1~†4로 표기한 회차 자료 보강을 통해 강의 본문과 시각적으로 구분된다.

지표 출처: gold.org · visualcapitalist.com · onlinegold.org · federalreserve.gov · inequality.org · bloomberg.com · us-debt-clock.com · fred.stlouisfed.org · sotosclassactions.com · auronum.co.uk

정리 · content-forge · 2026-05-07